



開 拓 精 神

開拓者의 길은 험하고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얻는 성취감은 그 무엇에 비할 바 없을 만큼 크다. 운동선수가 땀흘려 기록에 挑戰하고 探險家가 미지의 땅을 에쳐가며 山岳人이 때로 生命의 危險을 무릅쓰고 高峰을 오르는 것도 開拓에서 오는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함이다. 무릇 人類歷史가 그 시대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가지는 開拓精神에 의해 이끌어 졌듯이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들여 고귀한 결실에 이르려는 成就意慾과 이를 통해 歷史를 創造하려는 開拓意誌를 가져야 한다. 家庭도 會社도 國家도 그 盛하고 衰함이 모두 무언가 나은 環境으로 發展에 가려는 慾求 곧 開拓하는 마음에서 시작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 友德 著書 <내일을 생각한다> 중에서 -

산업보국의 외길 고집한 개성상인의 후에

- 한일시멘트(주) 창업주 故 우덕 허채경 회장 회고록 -

한일시멘트(주) 홍보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한일시멘트 창업주 우덕 허채경 회장은 1919년 11월 23일 경기도 개풍군 북면에서 태어났다. 한학자인 부친 허준 공과 모친 이수임씨 사이의 4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허회장은 북면의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개성 송도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허회장은 인근에서 가장 큰 삼보광산(三寶鑛山)의 직원으로 취직해 2년 동안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첫 사업은 광산에서 필요로 하는 갱목(坑木)을 전국 광산에 납품하는 목재사업이었다.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개성으로 돌아온 허채경 회장은 칠보석회(七寶石灰)를 창업하고 운영해 나갔다. 양질의 석회석을 원료로 소석회를 생산해내는 일이었다. 이 사업은 6.25동란 전까지 크게 번창하였으며 이는 근면과 성실, 신용을 회사운영의 요체로 삼아 열정적으로 일한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근간은 '개성상인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개성상인은 상업적 자질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영철학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사업가의 길을 나설 때 허회장의 부친은 사업의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올바른 상도를 터득하는데 정성을 쏟으라고 당부하

였다. 허회장은 이러한 가르침과 개성상인의 정도경영을 항상 경영의 근간으로 삼았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개척자

해방이후 허회장은 목숨의 위협과 실패를 맞는다.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혼란했던 시기, 게다가 신탁통치 결정으로 정국이 혼란할 때에 허채경 회장은 반탁운동의 대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좌익 테러들에게 납치, 구금돼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겨우 구출된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1952년 초봄, 1.4후퇴시 월남한 허채경 회장은 6.25 피란지인 부산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하자 삶의 터전을 대전으로 옮기고 다시 도전에 나선다. 소석회 공장을 차리고 소석회를 생산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멘트를 비롯한 전자재를 도소매 하면서 재력을 쌓아나갔다.

당시 국가 경제의 당면과제는 6.25동란으로 초토화된 국내 기간산업의 조속한 재건이었다. 이때 허채경 회장은 재건의 초석이 되는 기간산업은 바로 토목·건축의 기초가 되는 시멘트 산업이라는 사실을 통찰하고 시멘트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채 서울로 터전을 옮겨 시멘트 특약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윽고 1961년 11월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시멘트 특약점주를 주주로 하여 한국양회판매

(주)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기업을 통해 나라와 겨레에 이바지 한다”는 산업보국의 큰 포부를 세운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규합해 시멘트생산 회사를 창립키로 하고 이내 한국양회판매(주)의 사장직을 사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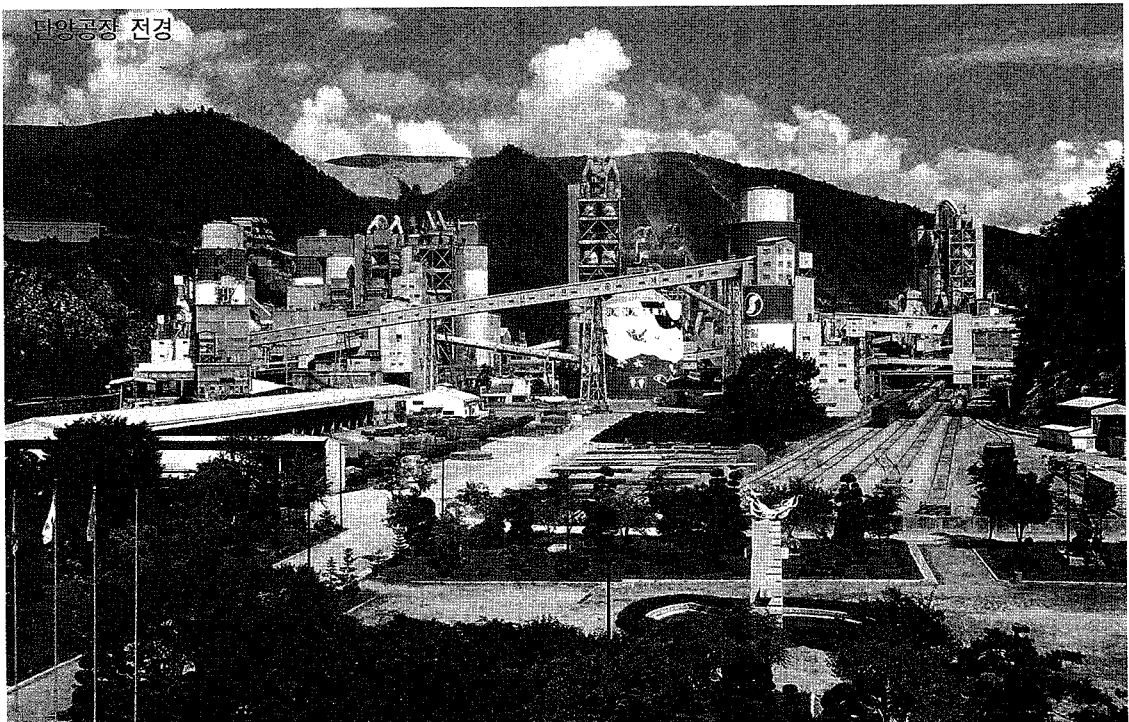
불모지와 같은 환경속에서도 개척정신으로 성공을 예비했고, 마침내 1961년 12월 허채경 회장은 한일시멘트를 창업하였다. 회사를 세우기까지 허회장은 여러가지 실패를 맞보면서도 늘 시멘트 사업만을 생각했다.

진정한 리더십, 사선에서의 결단력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시멘트산업 육성정책을 펼치자 허채경 회장은 차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이듬해 11월 충청북도 단양에 연산 40만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도약의 길을 걷게 된다.

허채경 회장은 보다 크고 우수한 석회석광산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당시 국내 굴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강원도 영월의 공장부지를 마음 한편에 둔채, 전국을 누볐다. 허회장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해서일까. 허채경 회장은 여타의 공장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양질이자 풍부한 석회석, 편리한 교통, 풍부한 용수 등 시멘트 공장입지로서는 최적지인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의 객산을 발견하게 된다.

객산의 개발과 함께 단양공장의 가동을 시작한 준공식에서 허회장은 “이 공장은 종업원 여러분의 공장이며 동시에 국민, 그리고 국가의 공장”이라고 천명하였으며, 또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설립하게 된 한일시멘트공업(주)을 열의와 정성으로 운영 발전시킴으로써 당초의 염원인 산업보국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은 물론, 특히 공장이 들어왔게 된 지역사회에 개발과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창업이념과 의지를 재다짐하였다.



그는 언제나 석회인임을 자임하였으며 단양공장을 세우고 확장하면서 시멘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갔다.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1965년 KS마크를 획득하고, 창립 5년만에 흑자경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허회장은 1969년 단양공장 연산능력을 100만톤 규모로 확장한 후 다시 110만톤 규모의 증설공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증설로 한일시멘트는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공장을 보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목전에 있었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증설공사의 성패는 클링커가 제대로 구워져 나오는가에 달려 있는데 준공 10일전부터 시운전을 했음에도 클링커가 가소(假燒)된 원료 그대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때 한일시멘트 실무진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원료를 투입하고 열량도 최대치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킬른의 폭발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선 이 방법을 택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허회장은 생사가 걸린 폭발위험 앞에서 비장한 결단력으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라며, 과감히 다량의 원료투입과 열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생사를 건 2시간. 킬른은 잘 구어진 클링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일화는 한일시멘트의 사활과 허회장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필요한 경우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허회장의 진정한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허체경 회장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오늘의 한일시멘트를 낳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외골수의 고집과 시대의 요구가 만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반을 다진 후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기 마련이다. 하지만 허회장은 외골수에 가까운 고집으로 시멘트 산업 한가지에만 몰두했다. 물론 사내에서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금융이나 유

통 등의 서비스업에 진출하자는 논의가 늘 있었지만 그는 한사코 반대했다. 기간산업분야를 일구어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하지만 경제·산업사회의 변화와 주변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의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의 한일산업주식회사가 바로 그것. 허회장은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박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라 이를 개간해 생산화하지 않으면 매년 수십만씩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관령 개발을 검토시킨 바 있으나 국내 사계 권위자들이 8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초지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허회장이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이를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허회장은 또 결단을 내린다. 당시 그의 심정은 그의 경영수상집 「내일을 생각한다」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내 심정을 말하라 한다면 이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국민적 과업이라는 생각이었다. 일국의 원수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결국 회사와 나 개인이 반반씩 투자하기로 결정을 보고 나는 서울 강남에 있던 개인 소유의 토지 1만평을 처분하여 출자했다. 이 땅을 그대로 두었다면 지금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을 터이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전옥답을 팔아 산골의 돌밭을 산 셈쯤 되겠다. 게다가 대관령은 나쁜 기후 조건에다 짐목만 무성한 황무지였다.」

이처럼 개인재산까지 처분해가며 시작한 대관령 산지개발은 10년간 계속되었다. 중간에 처분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허체경 회장은 오로지 산업보국이라는 사명과 개척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초지일관하여 8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초지조성이 어려워 목축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불식하고 출

발 10년만인 1988년부터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에 산파역을 하였다. 개척정신의 개가인 대관령의 푸른 목초지에는 오늘날도 그의 혼이 살아 숨쉬며 유택까지 여기에 마련토록 하게 함으로써 생전에 염원하던 나라사랑과 개척정신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 건설을 맡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과천 서울랜드가 그 결실이다. 서울시에 의해 주도된 이 사업은 당초 허회장이 서비스업이란 생소한 업종이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고사하였지만 서울시 당국의 끈질긴 권유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일단 착수하게 되면 개척정신으로 임하는 그였다. 허회장은 테마파크의 전문성을 고려해 한덕개발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밖에도 주식회사 녹십자를 통해 국민보건과 생명공학산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우덕재단을 세워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윤리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한우물만 파던 열정을 산업 각 분야에 고루 나누어 그 각각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거두었고, 이러한 그의 공적은 '1992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광으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였다. 기업을 일구어 조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30년 신념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 1992년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인간중심의 경영, 正道

“나는 올바른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돈이나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백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정신의 뿌리를 후손이나 사원에 깊이 심어 복돋워 주자는 것이 나의 염원이며 소망이다”

- 경영수상집 「내일을 생각한다」 중에서

남달리 경영정신을 중시한 허채경 회장의 면모는 “기업은 돈을 버는 것만이 그 전부일 수는 없다”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경영정신은 시멘트 산업에 매진하게 한 ‘산업보국’ 정신이며, 창립시절부터 강조해온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도 닿아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설립 초기부터 사원공채제도를 도입해 혈연과 지연을 배제하였고 한번 뽑은 인재는 철저히 관리해 경영자로 키웠다. 기업계에서 관행처럼 있어 오던 스카우트도 자체해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공채로 입사해 승진한 사람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밖에도 허회장은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으며 1969년에는 시멘트업계 최초로 기업공개를 단행해 기업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납세신고가 성실



▲ 허채경 명예회장의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잡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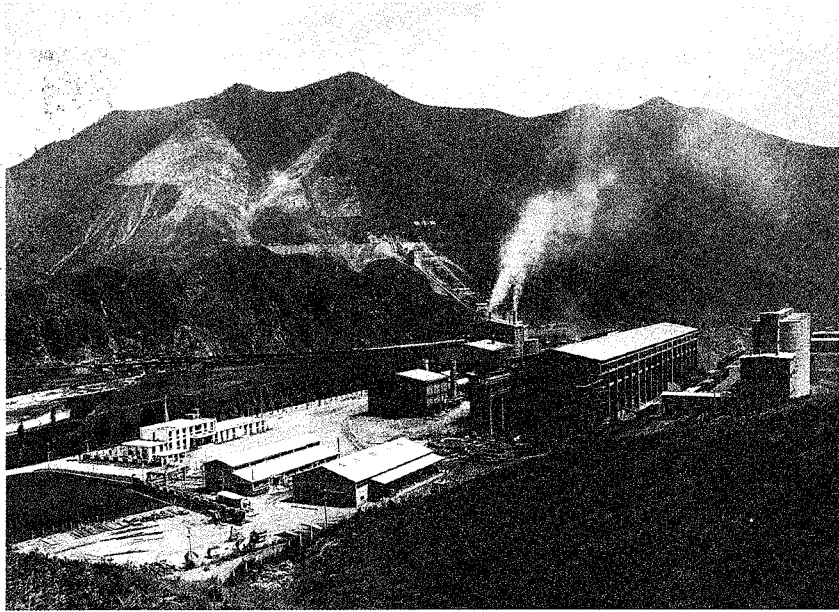
하다고 녹색법인으로 지정받은 것도 올곧은 그의 정신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허회장은 외형중심의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미래를 대비해 내실을 키우는데 주력했으며, 신용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았다. 때문에 한일시멘트는 오랜 기간 신뢰를 통해 다져온 장기거래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한 인간중심의 경영을 고집한 허채경 회장은 “글무식 보다는 인(人)무식을 경계하라”고 늘 강조하였다. 기업에 있어 최고의 재산은 바로 사람이기에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중심 경영과 정도(正道)에 투철했던 허채경 회장의 모토는 현재 한일문화 곳곳에 잘 배어 있다. 그동안 한일시멘트에는 노사분쟁이 없었다. 1965년, 회사설립 초창기에 노조가 설립되었음에도 말이다. 허채경 회장은 사원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썼고 각종 제안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애썼다. 또한 한일시멘트에는 180억원에 달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은 직원들의 주택구입과 자녀들의 학자금, 직원들의 각종 체육·문화행사와 각 씨클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그 외에도 인재육성과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우덕재단과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한일친목회에의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허채경 회장의 인간과 정도(正道)에 뿌리한 소산들이다.

‘재계의 숨은 진주’가 탄생하기까지

이처럼 ‘사람’을 바탕으로 신용과 내실을 중시했던 허채경 회장의 경영정신은 현재까지 곳곳에 살아 있다. 한일시멘트는 ‘재계의 숨은 진주’라 불리며 탄



▲ 단양공장 초창기 모습

탄한 내실을 자랑한다. 회사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비해 부채비율이 18%에 불과하고 창립 이래 43년간 적자를 기록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간 한일시멘트는 ‘최초’가 많은 회사였다. 시멘트업계 최초로 해외 수출을 했고 자원확보를 염두에 두고 한일자야를 설립, 해외법인을 가동한 것도 선구자적 안목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내력은 오늘날의 ‘레미탈’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건축자재 ‘레미탈’은 재래식 시공방식이 주류를 이루던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 전문적이고 기계화된 시공방식이 자리잡도록 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레미탈은 시멘트와 모래, 용도에 적합한 특성 강화제가 미리 혼합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물만 혼합해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용도에 따라 특화된 만큼 품질이 뛰어나며 인건비 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친환경 제품이라는 장점도 갖추었다. 한일시멘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내놓아 생산제품 종류만도 국내 시멘트 업계 중에서 가장 많기로 손꼽힌다.

IMF와 경기불황에도 한일시멘트는 건재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경쟁사회에서도 발

르게 대처하며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은 허채경 회장이 뿌린 씨앗이며 진주가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외길 시멘트인 지다

우덕 허채경 회장은 1995년 8월 9일 오전 11시 30분 삼성의료원에서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약관의 나이에 고향에서 소석회 공장을 운영하면서부터 일생에 걸친 기업가의 길로 들어섰으며, 정직·근면·신용을 평생의 철학이자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은 참된 정도경영의 이념을 창시하고 이를 유감없이 실천에 옮긴 이 시대 최고의 참경영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시 우덕 허채경 회장의 부음을 전한 일간지들은 그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며 “35년 시멘트 외길 인생 ... 우덕재단 설립, 인재양성도(중앙일보, 1995년 8월 10일자)”, “양회산업 발전 이끈 대부(서울경제, 1995년 8월 10일자)”, “국토개발 밑거름 외길 시멘



▲ 허채경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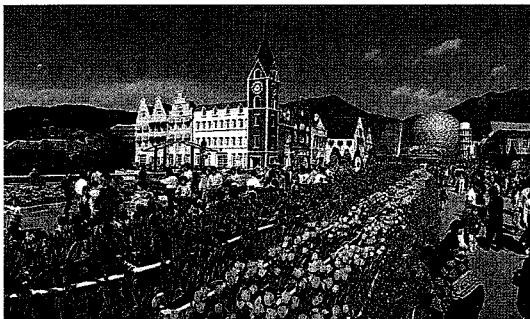
트인(한국일보, 1995년 8월 12일자)”이라고 애도의 정을 표했다.

2005년 8월 9일, 우덕 허채경 회장 10주기를 맞아 허회장을 애도하는 지인 250여명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 모여 허채경 회장의 유혼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



◀ 대관령 연수원 근경

▼ 한일건설의 유엔아이아파트



◀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의 서울랜드